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진디시팅방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공개 행사에서 동계스포츠 꿈나무들이 금동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글' 모티브 '한국의 美' 표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첫 공개

우리 민족의 상징인 '한글'을 모티브로 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메달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평창올림픽 메달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 이희범 조직위원장, 송석우 강원도 행정부지사, 국내 동계스포츠 경기단체장, 홍보대사,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스포츠 꿈나무 등이 참석했다. 메달 공개 행사는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공개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전 세계에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을 선보였다. 이날 메달 공개 행사는 메달 소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미래 동계올림픽 주역들의 꿈과 현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선,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말하는 메달의 가치를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

해 올림픽 메달의 가치를 풀어 나갔다.

이어 대회 홍보대사 선 씨와 정찬우 씨가 보자기로 뒤덮인 메달을 들고 입장, 화려한 영상(LED)과 음악이 어우러진 가운데 문체부 장관, 조직위원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3명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메달을 공개했다.

또한 메달 영상에 나온 동계스포츠 꿈나무 3명에게 각각 금, 은, 동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순서를 진행했다.

공개를 마친 뒤에는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메달 디자인을 설명했다.

이 디자이너는 '우리 문자인 '한글'을 모티브로 대회 경기와 메달이 '꽃과 열매'라면, '桀'은 바로 올림픽을 위한 선수들의 노력과 인내, 열정이라는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메달 양면은 올림픽 전통에 따라 좌측 상단에 오륜을 배치하고 선수들의 노력과 인내를 역동적인 시선으로 디자인했으며, 뒷면에는 대회 엠블럼과 세부종목명을 새겨 넣었다. 즉면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공연될 때의 자음과

모음의 조합 중 자음의 '쿄 츠 츠 츠 츠'과 모음의 '쿄 츠 츠 츠 츠'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메달과 함께 제공되는 메달 케이스는 전통 기와지붕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원목으로 제작하는 등 한국적 요소를 가미했다.

메달 케이스에는 메달과 메달 설명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배지, 메달 리스트 노트가 담긴다.

평창올림픽 메달은 모두 250세트를 제작한다.

이 가운데 222세트는 102개 세부종목 영광의 입상자들에게 수여하고, 나머지는 동점자 발생 대비용(5세트)과 국내외 전시용(국제올림픽위원회 25세트, 국내 7세트)으로 활용된다.

제작은 최근 후원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조폐공사가 맡았다.

이날 공개된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은 대회 상장물, 동계종목 피규어 등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마당에 전시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한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메달은 현재 주형 제작 등의 단계에 있으며, 발표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스

토트넘, 웨스트햄과 리그컵 16강서 격돌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잉글랜드 2017~2018 EFL컵(카리바오컵) 16강에서 웨스트햄과 만난다. 잉글랜드 뜻볼리그(EFL)는 21일(한국시간) 카리바오컵 3라운드가 끝난 뒤 4라운드(16강) 대진을 발표했다. 대진 추첨 결과 토트넘은 다음달 25일 웨스트햄과 런던 더비를 치른다. 을 시즌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

어리그(EPL)에서 2승2무1패(승점 7)로 5위, 웨스트햄은 1승 1무3패(승점 5)로 7위를 기록중이다.

이밖에 웨일시와 에버턴이 맞붙고, 기성용의 소속팀 스완지시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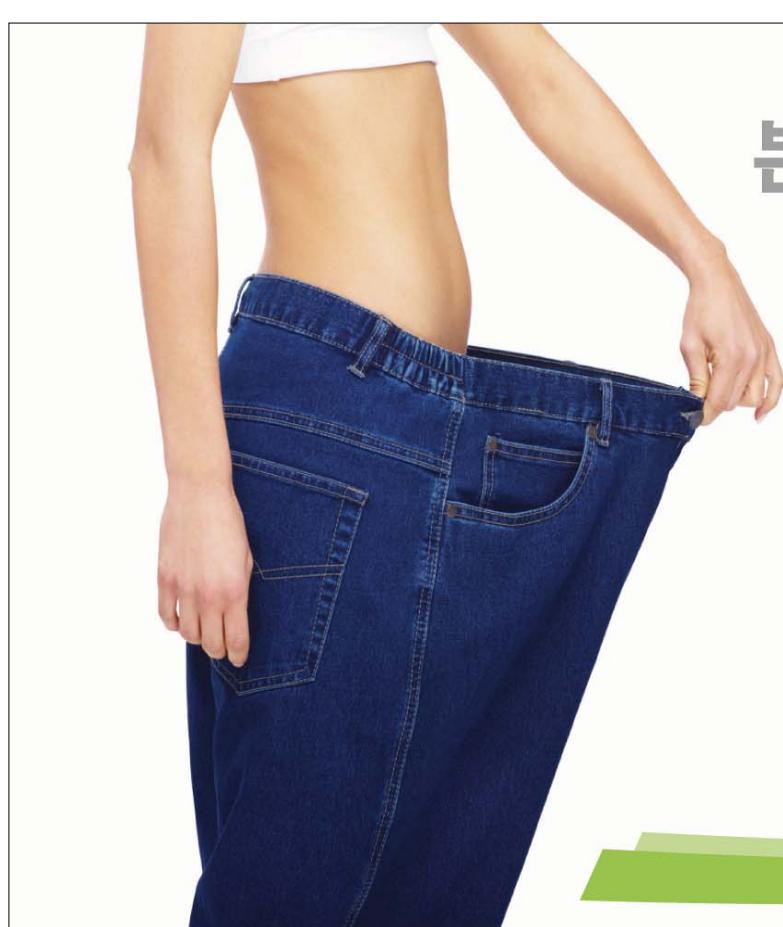
또 이청용이 속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리스톨 시티와 격돌한다.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는 각각 노



/김민근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프로야구 KIA-두산, 1위 자리 놓고 진검승부

내일 기아챔피언스필드 마지막 맞대결… 두 팀 승차 1.5경기차



KIA 타이거즈(시즌원족)와 두산 베어스가 22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를 치른다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가 1위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펼친다.

KIA는 22일 두산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불러들여 마지막 맞대결을 치른다.

현재 1위 KIA는 시즌 81승1무53패를 기록했고, 2위 두산은 시즌 80승3무55패의 성적을 올렸다.

승자는 불과 1.5경기차.

KIA는 시즌 초반부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두산의 추격에 불안한 형국이다.

정규리그 1위팀의 한국시리즈 우승 한 확률은 84.6%(전후기·양대리그 제외 26경기 중 22경기 우승)로 매우 높다.

현재 분위기는 두산이 좋다.

지난 20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패색이 짙은 7회초 2점을 뽑아 2-2로 동점을 만든 후 9회 결승점을 뽑아 3-2로 승리했다. 4연승을 달리면서 KIA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반면, KIA는 SK 와이번스와의 2연전에서 모두 패했다.

KIA의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는 여전히 7이다.

올해 상대전적은 양팀이 7승1무7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KIA는 9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두산은 6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KIA는 22일 두산전을 치른 후 kt 위즈와 4차례, 현화 이글스와 3차례, LG 트윈스와 1차례 맞대결을 펼친다.

두산은 kt와 두 차례 맞붙고 LG, 현화, SK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8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KIA와 3년 연속 정규리그 패권에 도전하는 두산, 호랑이와 곱의 마지막 싸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근기자

오승환, 13일 만에 등판… 1이닝 무실점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13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호투를 펼쳤다.

오승환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방문경기에서 7회말 등판, 1이닝 무인타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지난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서 1이닝 1피홈런 1실점을 기록했던 오승환은 13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세인트루이스가 8-2로 앞선 7회 등판한 오승환은 선두타자 호세 페라자를 우익수 뜯공으로 처리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이어 페트리 키블리한을 4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불려세운 후 터커 빙하르트를 1구 만에 중견수 뜯공으로 잡아냈다.

오승환은 총 8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구속은 93.8미일(151km)을 기록했다. 세인트루이스는 훌런 3방 등 11개의 인타를 터뜨려 9-2로 승리했다.

/김민근기자

류현진, PS 앞두고 24일 샌프란시스코전서 선발 검증

류현진(30·LA 다저스)이 시즌 막판까지 포스트시즌 선발 경쟁에 나선다.

오렌지카운티 레이스터의 다저스 담당기자인 빌 프런켓은 21일(한국시간)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리치 할·류현진·클레이튼 커쇼를 주말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3연전에 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밝혔다.

로버츠 감독의 구상대로라면 류현진은 24일 오전 10시 10분 다저스-나시ون

한다. 상대투수는 에이스 매디슨 범가디너다.

전날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과 미에다 젠터를 상대로 불펜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류현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그동안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평기에 인색했다.

류현진은 후반기 9경기에서 49%이닝을 소화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2.36으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

현지 언론에서는 다저스가 포스트시

즌에서 류현진을 3선발로 써야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류현진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등판, 4% 이닝 3피안타 2볼넷 무실점 무실점 피칭을 기록했다.

심사숙고한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을 포스트시즌에서 불펜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김민근기자